

## PD14)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의식조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

한재경·우형택<sup>1)</sup>·윤혜지<sup>1)</sup>·박은진<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sup>1)</sup>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 1. 서론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mm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해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된다.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480톤 이상(An and Kim., 2018)으로 해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며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회수하기가 어렵다. 2018년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장 내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과 급부상하기 시작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자료 및 방법

조사는 2018년 11월 19일~11월 22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교내 카페의 이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유효 설문지 125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식 6문항, 관심 3문항, 태도 5문항, 행동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 test, ANOVA를 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교내 카페 이용객의 43.2%가 남성이며, 여성이 56.8%였다. 이용객의 학년은 고학년인 3학년(32.8%)과 4학년(27.2%)의 이용객이 60%로 가장 많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 주 2회에서 3회(42.4%)가 가장 많았다. 제품 구매 시 미세플라스틱 함유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44.8%로 가장 높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42.4%로 87.2%가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식도의 총점 6점 만점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의 평균은 M=5.13점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태도( $p<.01$ )를 보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심이 높았다( $p<.05$ ). 학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분석에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1학년의 관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학년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으나 실생활에 적용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 4. 참고문헌

An, D. H., Kim, J. I., Proposing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microplastics, J. Env. Pol. Adm, 26, 77-102.